



산림청에서 산림의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남원시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최근 고시하였다.

남원시 국가산림문화자산 선정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신기마을 비보림·축성표석 등

산림청에서 산림의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남원시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최근 고시하였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자산 중에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유형·무형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홍릉숲,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2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 선정된 8개소 중 2개소는 남원의 산림문화자산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룡폭 구곡은 주천면 호정리에서 덕치리까지 약 3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제1폭

포와 제9폭포 사이 석벽에는 용호석문과 방장제일동천이라는 글씨가 새겨져있으며, 그 빼어난 자연적 경관 때문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다.

운봉 신기마을(1748년)에 지세가 허한 곳에 토성을 축성하고 나무를 심어 보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표석(보맥유림판대)을 설치한 것으로 비보림과 축성, 금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므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안내관·보호시설 설치비용 및 산림문화자산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무관심으로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교육·관광자원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북도에서 도탈관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간 1생태관광지 조성과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연계한 무형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 뜰봉샘의 경우, 1시간 1생태관광지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어 지역적 특색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생태관광 및 산림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나무·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생물테러 대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6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생물테러를 대비해 개인 보호 장비와 국가 비축 물자를 품목별로 지정장소에 적재 보관하고 철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내달 1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고창군보건소는 지난달 31일 고창농산물유통센터에서 실시한 탄저균 가정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에 지역

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가 참여한 완벽한 준비와 진행으로 도 관계자와 참관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생물테러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완벽한 생물테러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집단급식소 식품위생 지도점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순창군이 어린이 기호식품 및 집단급식소,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 군민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군은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40개소 및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 30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점검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참여해 식품용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 점검 실시,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실질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홍보전단과 어린이 안전사

용 의약의 구강용품 홍보전단지도 나눠줘 식중독 등 식품위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2일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위생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해 취약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점검단은 동계 주향의 집 금과 로템 나무, 쌍치 합계사는 마을 시설을 점검했다.

고정숙 위생계장은 "겨울철에도 식품 위생사고는 빈번히 발생한다"면서 "이번 점검은 특히 어린이와 장애인 등 식품안전 사고에 취약한 층을 상대로 한 식품취급시설을 집중 점검한 만큼 의미가 컸다며 식품안전 사고 없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관촌면 관촌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덕치면 들의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 등

임실군은 국민안전처로부터 9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심민 군수와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 관계자를 수차례 방문, 재난안전 위험 지역 및 시설물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적극 요청하면서 이뤄졌으며, 관촌면 관촌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 5억원, 덕치면 들의교 소교량 재가설사업 4억원이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관촌면 관촌리 침수지역은 지방하천(삼진강천)과 합류부에 위치한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매년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덕치면 들의교 소교량은 노후되고 하단부는 세굴되어 붕괴 위험이 높은 상태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였는데 사업예산이 부족해 수년째 지연된 사업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는 심민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용호 의원이 유기적으로 협력,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를 수차례 요청하고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침수지역 해소 및 노후교량 재가설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취약계층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

고창군에서 춥고 긴 겨울이 되면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지낼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산면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영민)은 지난 25일 부녀회원과 주민 50여 명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감정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김영민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추운 날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우 내 드실 수 있는 감정김치

를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헤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표명섭)는 소외가정 5가구에 연탄 1200장을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표명섭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꼭 필요한 곳에 전해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시장격리곡 건조벼 590톤 추가 매입

수발아 피해곡 전량매입

남원시는 수확기 쌀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1차 배정물량 9,860톤(산물벼 794톤, 건조벼 9,066톤) 외에 2차 시장격리곡 건조벼 590톤을 추가 매입, 총 1만450톤을 매입키로 했다.

이번 시장격리곡 매입은 제18호 태풍 차바에 의해 벼 수발아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벼 매입물량 19.5톤이 포함된 물량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태풍 등에 의한 피해벼 매입을 위해 추가로 배정함에 따라 이루어

어진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남원시 총 매입계획량 1만450톤은 전년도 매입물량 9,121톤 보다 14.5%(1,329톤) 증가된 물량이며, 남원시 조곡 생산량(7만1,150톤/9,288ha)의 14.7%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수발아 피해 벼는 기존 톤백(800kg)과 포대벼(40kg)로 매입하던 것을 600kg 톤백과 30kg 포대벼로도 세분화하여 매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경 포대벼로 일괄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가격은 잠정등급A 40

kg당량 2만5,510원, 30kg당량 1만9,130원, 잠정등급B 40kg당량 1만7,010원, 30kg당량 1만2,750원으로 매입하고, 피해벼는 농가 보관량 전량을 매입할 예정이다.

11월 24일 현재 공공비축미곡 매입 실적은 총 계획량 10,450톤중 6,495톤(62%)을 매입하였고 12월말 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비축(시장격리)미곡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 쌀 시장 수급안정과 피해 벼 매입으로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노인사회활동 해단식

임실군노인복지관(관장 한갑수)은 지난 25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단식을 갖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 참여 어르신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성

과를 동영상 상영을 통해 되돌아 보고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해단식은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문화재해설, 보육시설, 공공시설, 복지시설사업 등 4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구슬땀을

흘리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뿐 아니라 사회 참여기회의 제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시·군 지회장 간담회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김학성)는 지난 25일 군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연합회장, 지회장, 사무처장, 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 내용을 소개하고 군정 홍보 및 상호 업무교류를 실

시했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필봉농악보존회 공연을 관람하며 시·군간 우호증진의 기회를 마련했다.

김학성 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인회가 상호 협력해 노인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에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7년 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예방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예방활동기간에 현수막과 전광판을 이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사전 홍보활동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야간 유흥업소 밀집 지역 내 용의차량을 비롯해 지역 경계도로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최근 주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간에도 특별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최규운 서장은 "음주운전으로부터 자기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이 절대 필요하다"며 "술자리 차 안 가져가기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최규운 서장은 "음주운전으로부터 자기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이 절대 필요하다"며 "술자리 차 안 가져가기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고추 산지조직화 워크숍

임실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농협생명 변산수원원(부안군 소재)에서 '임실고추 산지조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심민 군수를 비롯한 관내 농협조합장, 생산농가, 행정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은 임실군 원예(고추)브랜드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고추산업 발전을 위해 원예브랜드 사업 추진 주체인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를 비롯해 임실고추생산연합회, 지역농협, 행정 등 참여주체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심민 군수는 "우리 고추산업의 현실이 농가 고통화로 인한 일손부족, 농산물 수급불안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군 고추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고추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는 올해 중국산 고추의 수입증가와 정부비축 재고물량 증대에 따른 고추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고추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700명의 농가와 계약 재배한 고품질의 홍고추 1,100톤을 수매하여 농가 생산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매한 홍고추의 가공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는 '도시 소비자 고추가공센터 초청행사'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해 총 35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는 등 고추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민원행정서비스 '만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83.5%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불특정 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2016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종합 만족도 평가 결과를 얻었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조사기관인 (주)한국정보통계를 통해 실시했으며 분야별 평가 결과로는 직임응대서비스 83.6%, 업무처리서비스 83.5%, 편의시설서비스 84.1%, 전반적 만족도 83.3%로 결과가 나왔으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타의견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 진행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